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사랑방 바이블 데이가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교육봉사 실습을 위해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학생이 29일(월) ~ 7월 4일(토)까지 방문합니다.
- 멋쟁이학교 종강발표회가 7월 4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역할 공동체 정기 회의가 7월 5일(일)에 있습니다.

제 44 - 26 호

2026년 6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상 · 임미숙 집사 가정 (감사)
진웅용 · 우창숙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박예찬 집사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억해야 할 이야기, 전해져야 할 이야기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와 유족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현충일과 6·25전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는 넷째주 금요일 저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연합방모임의 성격으로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방의 모든 모임에는 항상 먹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후에는 감자나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6·25전쟁 76주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 이야기가 그치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전쟁은 당사자 나라들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까지 영향을 줘서 불안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물가에 영향이 있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자라나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는 직접적으로 6·25전쟁에 참여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분입니다. 벼농사를 지어도 쌀을 팔아서 돈을 모을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고 난 후에 농사짓는 것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시며 전쟁이 일어나면 수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전쟁을 겪으신 분으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꼭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외문화체험으로 미국을 갔을 때도 전쟁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에 계시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 힘든 삶

을 사셨던 할아버지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때에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서 힘든 삶을 사시게 되었는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기도를 하실 때 항상 맛있고 풍족한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가 되었다며 뿌듯해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점차 6·25전쟁을 경험한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전쟁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는 먼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느껴지거나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침 성서일기의 본문이 역대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정리해 기록하면서 민족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다시 나라의 틀을 잡는데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지고 후대로 신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잘 전해져 후대에까지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 공동체에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전해져야 하는 것은 전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잘 뿌리내려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
< 로마서 6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5 365 / 208

기도 :

성경 : 역대하 6장

제목 :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1. 내용: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What)

<문단구분>

1~11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

12~39절 기도응답을 위한 간구

40~42절 솔로몬의 간구

2. 의미: 솔로몬은 겸손하였다. (Why)

1) 솔로몬은 먼저 속죄의 기도를 하였다.

2) 솔로몬은 봉헌의 공로를 다윗에게 돌렸다.

3)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주시기를 간구하였다.

3. 적용: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을 봉헌하자. (How)

1)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자.

2) 성전(우리 몸)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3)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여름의 할 일

여름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땀 나는 것도 싫고, 가만히 있어도 쉽게 지치는 계절이라 더 그렇다. 그런데도 여름이 가진 색깔과 냄새, 분위기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특별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면 싱그러운 기분이 든다. 또 여름엔 몸이 나른하게 늘어지고 게을러지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조금 조금해진다. 학생 때는 방학이 있었고 매년 여름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여름이 되면 괜히 사람을 더 만나야 할 것 같고, 책도 더 읽어야 할 것 같고, 미뤄둔 일들을 해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아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서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름이 딱히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았다. 계획했던 일들은 절반쯤 이루어졌을까 싶고 만나기로 했던 사람들과는 결국 만나지 못하기도 했다. 어떤 여름은 너무 더웠던 기억만 남았고, 어떤 여름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조차 희미하다. 분명 그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릿해졌다. 그런데도 그 여름들 자체는 오래 남아 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한다. 왜 우리는 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걸까. 하나님께도, 삶에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정작 오늘은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기다리던 내일이 아니라 별일 없던 오늘들이었다. 누군가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밤, 별 생각 없이 걸었던 길, 피곤하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웃고 있었던 순간들. 그때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 어쩌면 삶은 특별한 날들보다도, 별일 없던 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인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고 싶어졌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을 조금 더 자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아직 한참은 멀었을 가을을 기다리기 보다 지금의 계절을 좀 더 힘껏 살아가는 것.

젊은이사랑방 최예현 젊은이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예배의 찬송

*기원의 기도

*기원찬송

시 편 119 : 1-3

28

도자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요한복음 8 : 11

272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정재훈 목사

로마서 6 : 12-23

545

그루터기사랑방

설교자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봉헌기도

*영광찬송

*위탁의 말씀

*강복기도

436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혜라 한미선 / 봉헌위원 : 박태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은혜의 하나님

정죄함이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이전의 영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존재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의의 병기. 그리스도인의 지체는 영적인 세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이 무기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주도권을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나송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화창한 날씨에 양평민물생태체험관과 양평자연순환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면 좋은지 배우러 양평자연순환센터 오후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은 오후라 오전에는 그 근처에 있는 양평민물생태체험관에 가서 예쁜 민물고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철갑상어였습니다. 꾸러기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화려한 물고기들도 예쁘고, 작고 귀여운 물고기도 좋지만 철갑상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후에 교육을 맡은 선생님이 토끼를 보여주시고, 먹이도 같이 주면서 꾸러기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태우는 쓰레기와 매립하는 쓰레기는 자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게 특별한 작업을 한 이곳에서 처리를 하고, 분리배출 한 것들도 재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하여 공장에 보내지는 것을 센터를 돌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리배출을 하면 다양한 물건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며, 분리배출 연습도 직접 해봤습니다. 뒤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처리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노력이 자연을 지키고, 살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러기들도 센터 교육과 토끼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월요일 1교시 예배 시간, 장영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 - 역대하 1장 6~12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채워보자고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였어요. 이렇게 시작된 한 주 동안 6월 하순치고는 선선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화요일 여는 모임 시간에는 발을 살펴보고 오이고추를 하나씩 맛봤고요. 수요일 여는 모임 후에는 잠시 짬을 내어 다함께 운동장에서 경찰과 도둑을 했어요. 멋쟁이 노작시간에 트램펄린을 고쳐주신 덕분에 목요일부터 어

배움과 가르침

린이들이 트램펄린을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멋쟁이!!!)

올해 어린이는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고 별로 관심들도 없어서 월드컵 멕시코전과 체코전은 함께 관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는 어찌면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일지도 모르는 경기여서 전반전만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나라 축구경기도 구경하고, 멋쟁이의 축구 응원도 구경한 것 같아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4시 학부모회의, 7시 전체학부모기도회까지~ 참 알찬 6월의 넷째 주였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손에 잡힐듯이 가까워진 종강발표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바쁜 준비과정 속에서도 멋쟁이들은 생일파티를 즐기거나 월드컵을 관람하기도 하는 등,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을 한껏 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요일에 있던 학기말 자율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기 전체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간의 배움과 성장을 스스로 판단하여 기록해야 하는 평가서는 거의 10장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몇몇 멋쟁이들은 귀가 전까지 머리를 싸매며 쉴 새 없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다행이도 증축된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힘써주신 덕분에 학습과 모임의 장으로 잘 기능하게 된 것이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선생님과 멋쟁이들이 함께 기말면담을 하는 일정이 기다립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이지만, 성장을 확인하는 기쁨과 진심어린 대화가 함께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마라톤 같이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는 힘든 과정이고, 또한 멋쟁이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교육적 포인트입니다. 그 끝에는 학기 내 학습을 총정리하여 보여드리는 종강발표회가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심는 기쁨

레드벨벳 장미꽃이 빨간 함박웃음으로 반겨주는 이른 아침의 공동체 밭은 여느 유럽 풍경에 뒤지지 않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정점은 장미넝쿨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입니다. 전날 공지된 들깨 모종 심기를 위해 모이신 분들입니다.

이미 새벽 4시 반부터 모종을 뽑아 준비해주신 무림방 어르신께서는 모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더 뽑아 주시려고 본인 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들깨 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고 여린 모종을 세 가닥씩 적당한 간격으로 놓고 심어가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겁지 않아 땀은 흐르지만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신나게 심어갑니다. 야들한 들깨를 심으며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잘 자라다오~~!!' 바램 섞인 말을 주문 외듯 반복합니다.

며칠 전, 마을 어르신이 커다란 트랙터로 만들어 주신 밭의 흙은 촉촉하고 보슬보슬 합니다. 흙 내음은 언제 맡아도 기분이 좋고,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구리와 벌레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너도 여기가 좋구나~ 동지의식을 느끼며 개의치 않고 밭일을 계속해갑니다.

한 시간쯤 지나면 장로님의 간식~~~ 외침 소리가 들리고 미리 일꾼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시원한 음료를 마시러 갑니다. 빵과 과자, 음료가 준비되어 있지만, 간식으로는 밭에서 바로 딴 오이가 최고입니다. 허집사님께서 길어지는 작업에 허기질까싶으셨는지 두부구이를 맛나게 해다 주셔서 두 번째 새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고추를 곁들이니 진짜 꿀맛입니다.

그 넓던 밭고랑에 들깨 모종이 촘촘히 심겨져 갑니다. 초봄의 연둣빛이 그리웠는데 노랑에 가까운 연두색을 지니고 곱게 심겨진 들깨를 보니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멋지다.

심는 자의 기쁨은 충분히 누렸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의 손을 의지하여 올 해 들깨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336장, 420장, 218장

성 경 : 사도행전 19장 11-20절

말 씀 : 믿음의 다른 가치관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한국전쟁을 돌아보며>

6.25가 일어난지 76주년. 전쟁에 휘말려 많은 것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추모하며, 더욱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요르단 선교>

타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며 건강과 안전을 향한 위험이 줄어들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위해

2) 바IBLE데일로 말씀을 향한 마음이 모아지기를

3) 아픈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드디어 감자수확철이 되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기쁨은 정말 큼니다. 학생들에게 감자 수확의 기쁨을 선사할 생각에 더욱 기쁩니다. 이번 감자를 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간식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일찍 모여 들깨 모종을 심었습니다. 상추는 2차 심기는 종류를 다양하게 심을 예정입니다. 밭이 작물들로 풍성해지니 우리의 마음에도 덩달아 풍성함과 감사가 넘칩니다.

<장영미 전도사>